KBS NEWS

북한주재 中대사 "북한·지역 평화 수호…양국 교류 촉진"

입력 2021-06-21 10:06:18 수정2021-06-21 11:06:23 정치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진쥔 대사는 오늘(21일) 노동신문 4면에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북중)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가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리 대사는 "중조(북중) 두 나라는 다 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북한) 및 해당 각 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이 교류를 촉진하고 협조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당과 국가 건설 분야의 경험 교류, 교육·문화·보건·농업·관광 등 여러 분야의 교류, 청년들끼리의 왕래, 지방 사이의 협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금 중조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우리는 조선(북한) 측과 함께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하며 친선적인 교류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에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북 중국대사가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문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특히 북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미중 갈등 속에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강조한 것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과의 교역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새 주북 중국대사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왕야쥔이 내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이효용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자©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